

교회 목표

신앙에 예배
찬양으로 양생
민중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21)

발행처: 대한예수교총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제3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 예배시(오후 5시), 본당에서,
해당자들은 4시 30분까지 출석할 것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물로 주는 세례라고 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푸시는 세례를 '성령 세례' 또는 '불 세례'라고 하였고, 세례 요한의 신도는 신자들을 하여금 주 예수의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되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었다(고전 3:16). 그러므로 학습세례식에 임하는 모든 이들은 금번 예식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殿)으로 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영적인 감람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

새가족부 집회 시간 변경 10시 30분에서 9시 30분으로

새가족부 집회시간이 7월부터 10시30분에서 9시30분으로 변경된다. 해당되는 교사와 새가족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양의 문 (요 10:7-10)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7절b) - 이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이 자신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고(6절), 그래서 다시금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의의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7절b) - 예수께서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실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셨던 언어가 있다. 그것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아멘, 아멘(Ame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적 무지함에 빠진 인간을 설득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권위와 간곡한 부탁이 내포된 선언이다. 예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인간을 향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겠는가!

"나는 양의 문이라"(7절c) -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의 문' (the gate of sheep)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는 결론적인 선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매우 선포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매우 단순했으며, 자신에 대해 집중할 것을 권유하셨다. 그는 철학적인 언어나 사변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셨으며, 죄인을 위하여 아주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단지 영적인 각성과 믿음의 귀인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여 말씀하신 '양의 문' (the gate of sheep)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죄인이 발견하는 용서의 문(the gate of forgiveness)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구원의 문이니, 사망의 자루에서 벗어나는 문이다. 너희의 화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행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양이 갈

길을 모르는 것처럼, 죄에 의해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인간 역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마련하셨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 절대로 김도나"(8절) -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로 예수 외에는 그 어떤 통로도 허락하신 일이 없다. 그래서 구원은 선행이나 도덕, 철학, 또는 그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문이요 영생의 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

"누구든지 들어가며 나옴"(9절) -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다. 그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양들을 향해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는 모든 양들의 문이 되셨다. 특정한 부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빈부나 귀천의 분별이 없이 다 나와서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10a) - 인간들이 즐거워 찾아다니는 문들이 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락의 정욕, 이생의 자락을 위해서 들어가는 문들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양들에게는 언제나 세상과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 이사야의 고백처럼 '다 양 같아서' 그렇하여 자기에게 '길로' 가버린다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사 53:6). 그리고 그분은 그토록 이리저리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문을 만드셨다

제4차 성찬식

다음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에 걸쳐서 배풀어지는 '예수의 만찬'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26:26-29).

성찬식은 예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날 밤, 특별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분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성찬예배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뜻하며, 오직 자신만이 거룩한 식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에 네 번째로 시행되는 성찬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배푸시는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준비하시기 바란다.

위임 목사 동정

김성관 위임 목사가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주 출국하였다. 세미나에 관계된 모든 일정을 은혜가운데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신학 칼럼

교회의 이단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요일 4:1)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유혹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사수해 오고 있다. 한국교회에도 온갖 종류의 이단들에 의하여 침범을 받고 있고, 많은 신도들이 유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

이단들이 가진 특징이 있다. (1)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3)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이 있어, 그 책을 읽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4)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기성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기들이 가르치는데로 따르지 않거나 자기들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5) 종말론을 받아들이고 남과와 장소를 말하거나, 제림을 대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여 공동체생활을 강조한다. (6) 교주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신격화한다. (7) 가급적이면 외부와 단절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항상 '비밀'을 강조하고 폐쇄적이다.

이단들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1) 복음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권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여야 한다. (2) 진리위에 굳게 서야 한다. 말씀 교육을 통하여 성경의 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려 한다. (3) 제물보다 더욱 열심있는 전도운동에 전념해야 한다. (4)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요27:7-11). 이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5) 같은 신앙교회를 하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수목 같은 나무의 유혹은 커진다. 그러므로 교회도 영적으로든 바나나 같은 건강한 생물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행해야 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골 1:20) 아멘.

방준영(목사, 4교구지도)



Lord's Supper

(Matthew 26:26~29)

"And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s."

Today's Bible verses concern the Lord's Supper. Jesus instituted this special time of commemoration just prior to His suffering and death, which is a true indication of His foresight and forbearance. As such, we have to remember that He, Himself, is the center of our worship. He's the one who explained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is holy meal. We need to repeatedly remind ourselves of everything He defined and practice all that He emphasized. The Lord's Supper was Jesus' Last Supper until His return. It's significance is a very serious matter to believers. At this Table we are privileged to see, taste, touch, smell, and hear the Truth. We are richly blessed in the practice of this wonderful Gospel.

Christians need to feed in Jesus Christ. They need to feed in Him truly and actually, not hypothetically. Redemption and grace don't represent Jesus Christ, they are Jesus Christ. He is our life. Christ is received as food for our spiritual well being. At the Lord's Supper we eat the bread and drink the cup in remembrance of Him, but this isn't the only time we feed in Jesus. Christ is the bread of life (Jn. 6:35)! We personally participate in Him everyday. Our lives require that we eat the bread of life and drink from the cup of salvation daily. Christ is our everyday food. He's the food and drink that are common and available to all. He's not a special, expensive food available only to the rich. We can feast on Him anywhere, and no one can starve for lack of His availability. He is the bread that we definitely need to feed on daily.

This is important to understand because to many Christians think Jesus Christ is only available in special, expensive, and high places. They think He's only accessible during special times, like the Lord's Supper. As a result of this type of thinking, they

Christ gives Himself
to us in His death.

He took the bread and broke it,
and He poured the wine.

He separated the elements of
body and blood.

He explained that without
His death He can't give us new life
because the price of sin, all sin,
is death. It is the body on the cross
that feeds us. It is not the blood in
His veins which cleanses us,
but His shed blood that washes
away our sins and saves us

starve. Jesus Christ is daily bread! We must live upon Him always. His food is for everyone. It is the daily bread that humans desperately need to sustain life. This bread is so important. Sadly, few people feed in Christ daily. They think Jesus is special, reserved only for Sundays or Christians holidays or Christian ceremonies. That's why they are so hungry and thirsty, and why so many are truly starving. We must live upon Christ, not occasionally, but daily.

Jesus becomes as food to our souls in His incarnation. He is God. No one can come near to God without dying, for God is Holy by nature and man is sinful by nature. Jesus made a way for man to come near to God without dying. Jesus opens His arms to all, the poor can touch Him, the sinner can come to Him, the blind, lame, and sick, can all come to Him. He provided a way for man and God to relate. Jesus came to this earth, incarnated, so that we could be near God and live. His body and His blood are the food our souls need to commune with God. When we accept His body and blood our souls receive Him.

Christ gives Himself to us in His death. He took the bread and broke it, and He poured the wine. He separated the elements of body and blood. He explained that without His death He can't give us new life because the price of sin, all sin, is death. It is the body on the cross that feeds us. It is not the blood in His veins which cleanses us, but His shed blood that washes away our sins and saves us.

The Lord's Supper was instituted on the night before Jesus was betrayed.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He pointed on to the cross concerning His death. It is now the great memorial of Christ in His sacrifice for us. How can we come to this Table before us today? If you are not completely clean from sin, you cannot come to this sacred and valuable Table. It is impossible. How then can you come? I'm telling you Jesus, Himself, died for our sins to become our Savior. He is the only One who can make you pure and acceptable to God. He is life. Let's recognize Him, believe in Him as our Savior. Let's surrender to His Lordship, and then we can come to His table at His own invitation and refresh our souls with His grace. Amen. 卐



김성관 목사

주의 만찬

(마 26:26~29)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예수의 만찬

오늘의 본문은 '주의 만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기 전 날 밤, 그 시간을 통해 그의 제자들이 특별히 기념해야 할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예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분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거룩한 식사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모든 것, 즉 주께서 설명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되풀이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가 제립하실 때까지는 '예수의 만찬'입니다. 이 의미는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진리를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맡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실천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추측이 아닌, 참되게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속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떡과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 만족를 누리게 해주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베푸시는 만찬의 식탁에서 떡을 먹고, 그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성찬이 우리가 예수를 취하는 유일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입니다(요 6:35). 우리는 개인적으로 매일 그에게 동참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잔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취할 수 있는 떡이며, 음료가 되십니다. 그는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하고 비싼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를 누릴 수 있으며, 이

는 누구도 그를 취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여 굶주리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매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을 누리는데에 대해서 단지 특별하고, 고급스러우며, 수준 높은 장소 같은데서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는 오직 주의 만찬과 같이 특별한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베푸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생각의 결과로 그들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의 양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신자들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매일 그리스도를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는 특별하신 분이며, 단지 주일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절기와 예식 같은 때에만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른 이유이며, 또한 정말 많은 이들이 영적인 기근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양식

예수는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시고 인간은 본질상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두에게 그의 팔을 내밀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를 만질 수 있고, 죄인이 그에게 나아올 수 있으며, 눈먼 자, 들리지 않는 자, 그리고 병자, 모두가 주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과 하나님에 관계 맺도록 하

기 위해서 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과 피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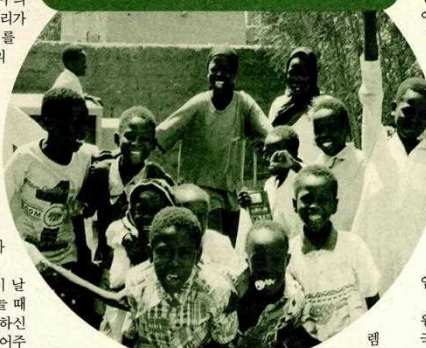
죄의 대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기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떡을 취하시고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부으셨습니다. 그는 몸과 피를 구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의 정맥에 흐르는 피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홀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의 만찬에 동참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는 밤에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지각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성찬의 식탁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신성하고 유익한 성찬의 식탁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분 자신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입니다. 주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그의 주되심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베푸시는 식탁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는 말씀을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다는 이 말씀이, 주의 진리가 궁창에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이, 하늘과 땅의 거리를 측량할 수도 없는 저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저의 현재 속에서는 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측량할라 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라 하나, 그 표현이 너무 짧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해서, 그런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진정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고,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가슴 벅차게 감사하며, 진정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일할 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마음을 다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시간이 살같이 날라갑니다. 그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또 매마 함께 기도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출현의 선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여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R국 상황

아직 많이 덩그러니,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될 듯합니다. 요즘은 하반(번지바람)이 제법 많이 불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온풍 먼지 투성이가 되기에 청소를 해도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그 더운데 문을 닫기도 어렵고, 열차나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나, 이것은 사치스러운 고민이요. 흠집으로 지어진 난민촌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이제 비가 오면 걱정입니다. 비로 인해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붕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지난 해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올해는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되어 안타깝습니다.

지난 4월 부활절 주간에 작년처럼 독일의 부흥사 레너드벵기가 왔었습니다. 작년 그 집회에 모였던 숫자가 참으로 어마어마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모습

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각 TV방송을 통해 이것은 사단의 회화며 토론도 하였으나, 하나님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아무런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번 부흥집회도 많은 사람들(특히 모슬렘)이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곳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부에 항의를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고, 레너드벵기가 왔음에도 결국 그 집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회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자 경찰들이 동원되어 수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이러한 대중집회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되었고(R국 헌정기관간의 집회는 허락이 되었음), 이러한 이슬람의 기독교 핍박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수 일 뒤 한 성공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표명하려 했으나, 경찰들이 교

회주변에 모여 그것을 저지하고 교회 안에 화염병을 던졌으며 많은 부상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 한 젊은이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로 던지는 화염병을 방어하러다 자신의 오른손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잡혀갔지만 지금은 거의 다 풀려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오스티'란 한 젊은이는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것을 제창하며, 오히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핍박할 것을 포기하고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R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기독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부의 피난민들이 있는 이곳 000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세계 기도정보에 따르면 R국의 기독교 인구가 19%로 되어 있는데, 그 중 개신교는 7%, 나머지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진정 R국 땅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R국을 끌어안고 마음을 쫓으며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시리라는 역대하 7:14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봅니다. 이 땅의 남부와 북부의 진영이 남부지역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집을 떠나 난민으로 서로 헤어져 고향을 그리며 가난과 질병, 차별 대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전쟁터에 보내기 위한 젊은이들을 잡아가려고 경찰들이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얻으면, 학생이 아닌 젊은이들은 밖에 다니기를 조심하고 불안해 하곤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가난으로 인해 물질을 잃고 의 존하는데, 심지어 어떤 신교단체가 이곳의 교회에 지원금을 내고 독립하게 한 것에 관심을 품고, 모든 선교사들의 비자를 취소하여 많은 신교인들이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니다. 이 곳 안에서 교파간에 하나되지 못하고 나뉘어 있고, 그 안에 정치적인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R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랍어학교와 성경학교

이런 8월경에 아랍어학교와 성경학교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늘 성경학교 장소가 없어서 이곳 저곳 열악한 곳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기존의 유스하우스로 있던 장소로 성경학교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00에 있던 학교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엄히 신변보호에 양질의 교육으로 진정 정직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하는 학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아랍어학교도 이전할 계획이며, 이것을 위해 장소를 개조하고, 정리하는 등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합니다. 이 학교는 R국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존재해야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름 단기임

7/23-8/3까지 단기임이 올 예정입니다. 비록 인원은 적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강한 주님의 군사로, 대사로 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들을 준비시키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써 R국 땅에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곳의 사역자들이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되어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01. 5. 31

R국에서 정은희 올림

세계 선교지 정보-3

무덤의 나라 이집트(Egypt)



80년대 이후 기독교에 대한 박박이 가속화되어 어떤 회교 지도자든 모든 기독교인들을 몰아버릴 것을 공공연히 권고하고 있다.



주일학교에서의 기적과 치유로 수천 명의 기독교인과 회교도들이 주님께 나옴



높은 출생률, 제한된 경직지, 제한된 물, 세계 경제 위조 때 매우 가난하여 황상 기기에 직면해 있는 이집트는



회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투옥되고 있고 1991년까지 132명이 투옥되었다.



개신교회는 1973년 이후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여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다.



회교 극단주의자들 간의 풀리지 않은 긴장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



1981년 이래 교회건축을 한 건도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교 극단주의자들은 교회들을 파괴했다.



또한 13개 대학 685,000명의 학생 가운데 기독교 복음전도가 활발하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에게 선교의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회교 근본주의는 이집트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최근의 박해로 인해 감독교회와 개신교 지도자들이 합심하고 있고, 1992년부터 영적 부흥이 이루어졌다.



국심한 가난 속에 기독교가 과거의 영광을 위대한 채 무덤에 묻혀버린 이 나라에 찬란한 복음이 꽃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조이선교출판사
만화로 보는 세계지도본에서 발췌 요약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장미라 (청년2부)

안녕?
친구들의 기도덕인지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충만하여 감사와 행복으로 기쁘게 지낸다.

다,
처음엔 업무 피하고,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어,
그런 힘든 중에 한글로 된 성경책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던지,
교회 가며 일어로 된 주보를 보면서 저게 성경의 어느 구절인지 몰라 한글, 영어와
일어로 된 성경책을 펼쳐놓고 찾아가면서 읽었어,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제목을 찾은 다음에 다시 한글로 된 찬송가를 찾아서 혼자 속으로 부르면서 기도
했어, 아예 찬송가를 하면 얼마나 반갑던지 그 기분을 아냐! 한국에 있을 때 무심
하게 넘기던 성경 말씀들이 글자만으로도 내 눈에 속속 들어왔어, 또 결정적으로 내
고 나면 성경 말씀을 들 수 있게 된 건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야, 일본에 남아 있
고 싶었는데, 내가 일본에 남는 것이 합당하지, 서울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인도해 달
라고 기도했었어,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지 몇주 후에 회사에서 제의를 해왔어, 일
본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게는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지, 아마도 내가 일본에
있는 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유익한 환경이었나봐,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는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는 생각도 못했거든, 너희들이 걱정하던 것과는 달
리 오히려 여기서 5월부터 큐티도 하고 있어, 요즘 너무 행복해,
지금은 우리 엄마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신앙인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기도해
줄래?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느낀 거, 큐티하면서 느낀 거 적어보겠네,
그럼 수고하고, 친구들한테도 안부전해주고, 너희들이 일본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많이 걱정하고 내가 가지 않기를 바랬었잖아?
하지만, 이곳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손길 안에서 감사하고 행
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고, 아가 얘기한대로 우리 엄마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줘, 안녕.

(현1부4-8) 오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살을 막 행동을
마무리해 있고 그들을 중생했습니.



우리도 쉽게 회개하고 후회하기 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중생하여 사랑합시다.



문의 및 아이디어제공 : minj74@jaangminn.com

배짱을 가집시다

박진희 (청년2부)

요즘을 사는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지혜보다는 많은 지식을, 동기보다는 결과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떤 현실적인 증거들과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성향이 짙어졌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정이 메마르고 자신만 편찮으면 된다는 좋지 않은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해있습니다. 이런 성향들이 교회 내에서 또 만연한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까요? 이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이해와 용서입니다. 같은 색깔이 아니면 이해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화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조자의 아름다운 세상에 내려와 미친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는, 이해와 용서의 차원이 아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일관된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늘어났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탄은 분명 최고의 전술을 사용하여 방해공작을 펼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윤행되기에 우리들은 배짱을 가쳐도 되지 않을까요?

충현의 어려움!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배짱을 가집시다. 우리들의 낯과 좋지 않은 모습들은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 받으라는 배짱,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런 배짱 말이예요!

하나님, 비아냥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리 동포를 기억하소서!

1997년 중순 은성군 안보부 구치소에서 일곱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파했다는 피폭으로 은밀히 총살당했다. 그들은 순교하는 최후 순간까지 기도와 찬양을 그치지 않았으며, 총살 당시에는 입에 재갈이 물리고 몸의 관절이 쥘린 채 순교했다.

1998년 초 최령시 보위부 구치소에서 조영중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모진 매를 맞았고, 음식을 주지 않아 아사 직전에 처형당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매일 기도했으며, 죽어 가면서도 동료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장렬히 최후를 맞이했다.

1998년 여름 은성군 보위부 구치소에서 허태성 외 두 사람이 총살을 당했는데, 죄목은 예수를 믿었고 전파했다는 것이었다. 이 세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매일 기도했고, 사형을 당할 사람답지 않게 얼굴이 평안했으며, 나직 대담함이 있었다. 이들이 총살을 당하려 할 때에 기도가거나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렸었다. 온 몸을 심하게 때려 빈사 지경으로 만들어 처형했다.

1999년 말 청진시 보위부 구치소에서 두 명의 형제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들은 중국에서 전도를 받고 자신들의 이름을 요한과 갈빈으로 바꾼 신실한 형제들이었다. 저들은 중국에서 북한 체포조에 의해 비밀리에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은 중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최후까지 신앙을 지키는 순교로 끝났다.

오늘 북한 안에는 약 이십만 명의 죄수가 12곳의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있다. 그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없고, 고조부 비잔틴서 캐피탈스도 들어나지 않은

에 걸리고, 식량공급이 끊어져 배고픔을 하소연하다 잡혀들어갔고, 언어의 자유가 없는 체제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평이 원인이 되어 재판도 재판도 받아 보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최근에 와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남한으로 탈출한 000명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6년 동안 개천개화소에서 감금생활을 하였다. 그가 있었던 개화소에서는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만 따로 분리하여 수용한 사람이 150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죄명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다른 정치범 죄수보다 더 심한 노동과 더불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첫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온갖 고초를 당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그들의 신앙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복음의 재생선이 수용소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고하게 홀려지고 있는 피흘린 죄악이 멈춰지기를 위해, 또, 그 피흘린으로 북한 땅에 저주받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주의 공물을 구해야 한다.

셋째, 오늘날 국경을 넘나들며 드나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북한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혹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발췌: 모퉁이들 카타콜스 소식, 오픈도어 기도정보

내 마음의 묵상

늘 함께하신 주님

김 경 숙 (집사, 4교구)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 보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음을 느끼게 된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내 삶 속에서 주님은 늘 조용히 함께 해 주셨다. 삶에 지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때에도, 아이들과 나누는 기쁨 때문에 주님을 멀리 했던 때에도, 주님은 가만히, 조용히 다시 돌아오는 길을 기다려 주셨다. 계속하시지요, 서둘지도 않으시면서, 무심코 내뱉는 나의 한숨과 푸념에도 주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치 않으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셨고,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말도 그냥 가만히 덮어주셨다. 마치, 갓난아이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엄마처럼... 주님은 매 순간 내 삶의 주관자로 계셨고,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결코 주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껏, 삶이 주는 무게에 억눌리지 않고 삶의 고개 하나 하나를 잘 넘어온 것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는 것은,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 또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셨던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도 늘 순종하며,
주님 위에 살게 하소서.

내 일의 진솔

찬송할지로다

정 옥 남 (권사, 17교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시(68:19))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또한 하는 일을 다시 돌아보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지난 이 년 동안에 참 어려운 일들로 무릎 꿇게 하시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주시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주님. 주저 없거나 자만할까봐,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

말씀을 그제 매일 읽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온 식구가 합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 저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삼고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선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급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수현' 성도를 소개합니다

올해 유아 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의 밝은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교회에 나오고 새가족부 집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 곁에 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담임 선생님께서 매주 한두 번씩 전화 연락을 주시며 자신에게 관심을 써 주시는 배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윤달진' 성도를 소개합니다

현재 서초동에 있는 법률 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85년경에 학습 받고 그날 지내는데 95년에 후배가 적극적으로 전도 했으나 교회 다니는데 꾸준히 못했다. 그러던 중 중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았다. 중간에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 이신 것은 확실히 믿는다. 새가족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배'가 아닌 '집회'라는 특징이다. 신앙 생활 하며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 양로실

"이는 성자와 이사야도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 8:17).

4교구 김선옥 어린이(7세) 감기가 뇌막염으로 다시 뇌성마비가 되어 혼자서 앉지도 먹지도 못하며, **강정자 집사** 척추 4마디 쇠연결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5교구 **김재수 집사(남71세)** 비인두암으로 강남 시립 병원 593호에서 투병 중이며, **한정자 성도(여62세)** 혈소판 감소증으로 순천향 병원 839호에 입원 중입니다.

6교구 **홍동진 타교 집사(남57세)** 갑상선암으로 동맥 옆 힘줄에 붙은 혹과 연골에 붙은 혹 제거수술을 6월 25일-26일에 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수술이므로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교구 **김대길 성도** 식도암으로 메디컬센터 609호에 입원 중입니다.

13교구 **이순녀 권사(여79세)** 자궁암 말기로 병원에서 이미 본인에게 통고한 상태입니다. 어생을 주님께 맡기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면의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으로 선음하는 환우들이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김 석 진 (집사, 위선부 교사)

비쁜 일상 속에서도 주만 충현의 모든 가사를 빼놓지 않고 읽는 것이 하나의 낙이 되었다. 오늘 뜻밖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닌 뜨거운 눈물이 펄펄 쏟아지게 하는 글을 만났다. 초동 3년생인 아이가 어찌 그리도 글을 잘 썼는지 가슴 끝에 어찌 내린 소나기 같다고 할까? 비개인 오후 청명한 햇살 감기도 또 싱그러운 풍황이 감기도 하였다. 그토록 그늘지고 구석진 곳에서 자란 아이가 이렇듯 이렇게 해맑은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아마 지금쯤 그 가정에서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살아보면 세상이 각박하기도 하지만 때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다.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내리다 보시고 호못해 하셨을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의 그림자가 아냐가 생각한다. 그림자의 속성상 음영의 농담은 다르겠지만, 하얀 천국을 모험으로 창조하셨을 것 같다. 마치 한 폭의 수묵 담채화를 보듯이 화면을 면면히 살펴 보면 참으로 구석구석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아이처럼 예쁜 맘이 있다면 이 세상은 진정 살만한 곳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또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 안락한 천국에 가고 싶다고 종종 생각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이제라도 사는 동안에 스스로 따뜻한 질화초처럼 온누리에 못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그 자체가 되고 싶다.

오늘의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376장)

우리 한국의 성도들 특히 노인층에서 많이 부르는 복음 성가류의 찬송가이다. 이 찬송은 통일찬송가 23장(만 임이 내게 있으면)의 곡에 새로운 가사를 붙인 것이다. 작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나라 목사님 한 분이 은혜 중에 작사한 천국에 가고 싶다고 종종 종종 생각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이제라도 사는 동안에 스스로 따뜻한 질화초처럼 온누리에 못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그 자체가 되고 싶다.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주의하리라
이 세상 이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 같이 헛된 세상일 휘할 것 무려나
이 수고 일만 하여도 헛된 것만 믿어세.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감내지 마시라
구주의 권는 크니 이기고 넘기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았네.

살 길이 빠른 광명을 주 위해 아끼세
은 물과 맘을 버리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김철환 (검사, 유아부 부장)

주님,
유아부 어린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소망 그 믿음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이들과 부모님을 아름다운 미소로
반기기 맞이하는 신임부 집사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함께 갈라 힘을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이들을 따듯하게 감싸안아주며,
말씀주신 어린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공과공부와 사랑과 용서와
그림그리기를 함께하며
주님의 자녀로 키워가기를 힘쓰는
교사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어린 생명의 가슴 속에 심어주기 위하여
예쁘고 알뜰하기 쉬운 말과
주변하 시정할 자료를 가지고
모든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직은 어려서 침중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가르치며
지휘하는 지휘자 선생님과
열심으로 반주하는 반주자 선생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이들의 찬양 연습하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옆에서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추년해서 맡겨주신 어린 생명을
주님의 자녀로 잘 키워주기 위하여

모든 예배와 학습행사일정을 기도로 준비하는
유아부 부장이자 하나님 부장, 각 시과장님들의
헌신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배시간에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떨어져서
울며 떼서던 아기가 혼자서도 예배 잘 드리는
아이로 자라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지난날 주일학교 교사일 때에
그 밑에서 가르침 받고 자라난
지금의 유아부 부장, 부장, 교사님들이
주일학교 스승의 손자, 손녀들을
대물이어 가르치는 자리에서 있게 하시며
또한, 유아부 어린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올라가게 성직해서 지금의 교사들의
손자, 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민트인 터전인 총회회의 모습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에서
성도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람으로 새 거룩을 이루며
새 생명으로 복복하여 주시며
새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대대손손 세대로 주님의 태하신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해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하심과
평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류은 경 (영아부 교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언뜻 스치기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갑자기 밤낮이 없으면서 기운도 없고 어지럽기만하고 잠만 온다. 병원에 가니 "임신입니다. 축하해요. 산모가 나이가 많으신데, 큰 애는 몇 살인가요?", "네, 열 살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도 원하고 기다렸던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병원에서도 인공수정을 권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나에게겐 커다란 죄악처럼 무겁게 느껴졌기에 감히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으로 보여 주셨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확신을 가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포기라는 말이 자주 떠올랐다.

주위의 분들은 이런 나의 심정도 모르고 "하나님 기를 क्या? 안 되지, 하나 더 낳아야지."
"또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소리들! 막상 이런 일장에 섰다면 그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땐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기도 때였다. 그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었고, 더욱 급한 기도가 있었기에 기도하고픈데 하나님께 나에게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 술 취한 모습처럼 기도했던 말씀들 떠올리게 하시더니, 한 없이 눈물만 흐르며 하시며 과거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셨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항상 조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다른 때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다. 그 동안 하나님 작은 일부분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날은 한나의 모습만 떠오르게 하더니, 울게만 하셨다. 그리고 한 달 후 임당이 시작되었다.

병원에서 임신임을 알게 되던 날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한참을 걸을 수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다. 큰 아이 때보다 입덧이 심해서 밥을 먹지 못해 배가 너무 고프서 위가 뒤돌리는 일까지 겹쳐서 전기가 어려웠다. 구역질을 하다 보면 마치에 실례하는 일은 허다하고 어지러워서 앉아 있지 못하게 되기도 했다. 그런데 주일만은 찬송의 위로, 말씀의 위로의 주님의 힘을 얻어서인지 힘이 솟고 기쁨이 더욱 넘쳐 감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런 시간을 누가 알까? 그러나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기는 알겠지?

아이가! 엄마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먼 길이다. 밥을 먹지 못하고 심한 입덧으로 구토를 해도, 엄마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정말 행복한다. 메탄산도 나의 몸대너를 주었고, 네가 점점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신다 정말 감사, 감사 또 감사한 일이 아니겠니? 엄마는 너를 갖기 위해 하나님께 10년을 울었지만 지금은 그 눈물로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의 보석으로 바뀌어 주셨다. 많이 잊지 못해서 우리 아기가 힘들까 봐 걱정했는데 그 것까지도 하나님은 걱정해서 말라고 하신단다.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은 평안하구나. 아기가! 널 위해 기도해 주신단 분과 또 엄마와 만난 때까지 잘 자라렴.

그 동안 아기를 위해 끝없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달 만에 예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불 지시며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비례를 받으심을 원하노라(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해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성경공부하는 자매 중에 간호사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야간근무로 인해 병원에 달려가기도 하고 일하고 뒤늦게 달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간호사로 불러 주신 일에 감사하며 병원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애쓰고 있다.

병원일로 인해 몇 주 보지 못하여 일부 전화를 하게 되었다.

"oo아 잘 있었나? 별 일 없었나? 몸은 괜찮나?"
"예,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몸은 좀 힘들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언니, 저, 기본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처음 참으로 속상하게 하고 못 생각 하는 선택이 있었는데, 그 선택이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느날 저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 동안 미안했다고 하잖아요?"

"이미 그래, 어,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구나!"

"예, 정말 그래요"

"너가 그 자매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줘야겠구나"

"예, 그대야말로"

나는 전화통화를 마치고 참으로 마음 속 꼭 한 기쁨으로 행복했다. 타인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 생각되었다. 또한 자신을 힘들게 한 하던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 묵묵하게 참나, 남들처럼 힘들어 했을 자매를 생각하니 오늘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지체들과 서로 아기를 바나 보며 각자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하는 상사들도 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미리 가운데 보내는 어떤 양 같다고 하셨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주신 더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리를 어떤 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만 날도 잊으리!

어쨌든, 이리를 어떤 양으로 만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오미라 기자)



